



08

S-OIL MAGAZINE
Vol. 417
August 2016



43 건강 비법 나눔



44 길 위의 맛집

46 한뼘지식

04



주요 경영활동·CEO 동정

S-OIL Dream 장학금 및 선덕합창단 후원금 전달 | 2015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발대식·캠프 | 2016 광고캠페인 신규 론칭 | 운영총괄 우수 사원 표창

11



단신

경유 한국능률협회 선정 '고객가치 최우수상품' | 최고급 윤활유 'S-OIL 7' 신규 광고 이벤트 | 새 '구도일패밀리 이모티콘' 배포 | 주유소 중고의류 나눔 캠페인 확대 시행 | 운영총괄 기술 스테디 | 임직원 동정

14



반갑다 주유소

테크노주유소

16



한 장의 추억

경리와 손길상 사우 가족

18



명작의 탄생

프디라 칼로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

20



허브 테라피

기계2과 박동일·신대광 사우

22



오늘은 이 책

CEO실 오헤린 사우 (프렌즈 홍콩·마카오)

24



성공의 법칙

사우스웨스트항공 CEO 허브 켈러허

26



섬길 걷기

경남 창원 실리도·저도

30



햇살나눔

임직원 자녀 자원봉사 캠프 |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캠프 후기 | 분해3부 해미어린이집 동행 숲나들이 | 밝은 웃음 찾아주기 캠페인 '급여우수리' 나눔 |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무료공연 '인디록페스티벌'

36



두런두런 수다방

공장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자율 독서 동아리' 활동 | 퇴직 후 설악산행 회고 | 퇴직 후 포토에세이집 발간 | 유류수송차량 운전원 고객칭찬 사연 | 사우 자녀 편지

43



건강 비법 나눔

근력 강화 운동

44



길 위의 맛집

제주시 별미 거리

46



한뼘지식

신문제호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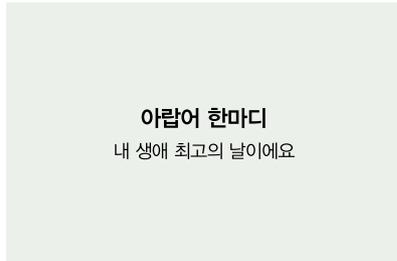
48



영어표현 길라잡이

프로젝트 상황

49



아랍어 한마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50



이달의 퀴즈·엽서

보육시설 청소년 위한 꿈 지원

우리회사가 취약계층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한 장학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신설된 'S-OIL 드림(Dream) 장학금'은 저마다의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온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귀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다.

S-OIL Dream 장학금 및 선덕합창단 후원금 전달

혈연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정진하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회사가 새로운 햇살나눔에 착수했다. 우리회사는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7월 19일에 보육 시설인 선덕원을 찾아 'S-OIL 드림(Dream) 장학금'을 전달했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이상근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정정임 선덕원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우리회사는 보육원 출신 이공계 전문대학 신입생 40명에게 각 250만 원씩 지원될 장학금 1억 원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유일의 여아 보육원 합창단인 선덕합창단에도 후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우리회사는 올해 전문대학에 입학한 보육원 출신 대학생 중 화학공학, 기계, 전기·전자 등 이공계 전공 학생 40명을 선발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학업과 자립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졸업할 때까지 장학

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학금 수혜 학생 중 우수한 학업 성취를 이룬 학생이 우리회사에 입사를 지원할 때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이 지원 사업은 어린 나이에 가족 해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받은 상처를 보듬고 우리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전문지식을 갖춰 사회에 진출하고 각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리회사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체계적인 장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직한 소방관·해양경찰의 유자녀,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화물차 운전자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체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장애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학습 보조기구를 후원하고 있다.



공정적 가치 확산 위한 노력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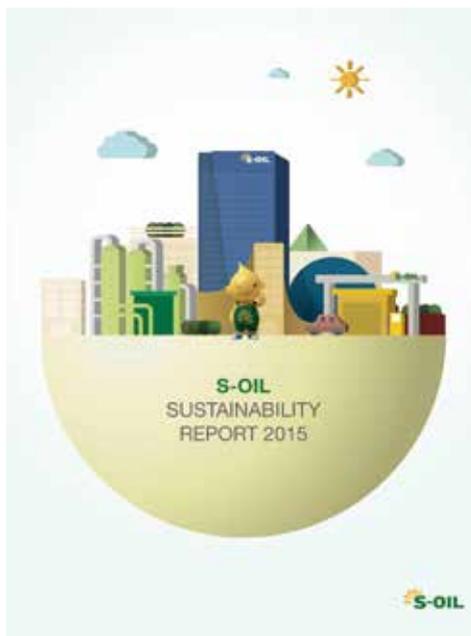
우리회사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해의 성과와 노력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우리회사는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2015년 회계연도 지속가능성보고서(통권 9호)가 7월 19일 발간됐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우리 사회 전체에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회사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정리해 담고 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Special Report’로 수록했으며, 이를 통해 △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에쓰-오일 △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에쓰-오일(다양한 가치의 창출과 분배)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발간사를 통해 “창사 이래 최대규모 프로젝트인 정유-석유화학 복합설비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가치

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견지해 나가겠다”라고 기업 시민 본연의 역할인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당사의 노력을 전했다.

9월 초에는 안드로이드, iOS용 모바일 기기(휴대폰·태블릿PC)로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공식 개시된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에는 지속가능성보고서 내용을 비롯해 에쓰-오일 뉴스, 경영진 인터뷰, 채용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에쓰-오일 뉴스는 사보 등 회사의 소식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섹션으로, 매달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알리는 푸시 알림을 전송함으로써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제공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환경 리더의 행진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발대식·캠프





햇살나눔 환경지킴이 캠페인 일환의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발대식이 7월 13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우리회사는 차세대 환경 리더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환경보호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내 유일의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제7기를 맞은 지킴이단은 환경·생물 관련 전공학과 재학생은 물론 일반 학과 학생을 40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발대식 뒤 청평, 영월, 화천 등지에서 2박3일 동안 캠프에 참가했다. 이를 통해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호와 생태 조사 활동을 펼치고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환경수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킴이단의 사명을 마음에 새겼다. 우리회사는 2008년 문화재청과 천연기념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수달, 두루미, 어름치, 장수하늘소를 보호종으로 선정해 연구단체를 후원하는 한편 대학생 봉사단과 임직원 가족 자원봉사자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등 전문연구·보호단체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기부금으로 3억 원을 전달했다.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우리회사가 새로운 광고 삽입곡인 '행복해송'과 함께 뛰어난 영상미와 작품성을 고루 갖춘 새 광고캠페인을 선보였다. 우리 브랜드는 판타지 콘셉트의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한층 친근한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다.

2016 광고캠페인 신규 론칭



판타지로 위안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다

그런 상상을 해보았는가? 주말 오후 가족들과 함께 큰 맘먹고 나선 나들이길. 차는 꽉 막히고 뒷자리에 탄 아이는 힘들다고 떼를 쓸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지금 이 차에 풍선이라도 달고 짜증스럽게 막힌 길을 떠나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상상. 혹은 하루 종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각박한 현실을 떠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판타지의 세계로 떠나는 상상...

이처럼 우리는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의 세계로 떠나보는 상상, 즉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교통체증, 육아, 출퇴근, 입

시, 취업 등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상상을 누군가 대신 실현해준다면 어떨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친 삶 속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시대적 가치를 광고적으로 풀어난 우리회사는 올해 광고캠페인에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다. “에쓰-오일이 당신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바로 길을 나서보 시라. 훌훌 털고 떠난 그곳에서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 다시 이 힘든 현실을 버텨낼 힘을 얻고 올 테니!”

화려한 영상미와 감미로운 광고 삽입곡이 흐르는 영화 같은 광고

주말 나들이 길.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면서 꽉 막힌 도로에서 점점 지쳐가는 가족. 그때 에쓰-오일 주유소로 들어가는 자동차. 기름이 들어가는 순간 가족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주유구에서 풍선이 나오면서 자동차가 붕 떠오르고, 가족들은 변신한 승승카를 타고 환상의 세계인 '구도일랜드'로 여행을 떠난다. 곧이어 판타지 세계(풍선을 터뜨리는 흥학, 구도일랜드로 가는 길, 구도일패밀리와 그 일족, 오페라를 열창하는 가족과 구대디, 기린과 하마, 메리고라운드 등)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번 광고의 대표적인 특징은 화려한 영상미다. 수준 높은 영상미 연출을 위해 미니어처 제작, 세계적 아티스트와 콜라베이션, 판타지 콘셉트로 자동차 튜닝, 캐릭터 의상제작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또한, 영상미를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전달하기 위해 30초와 60초 광고, 1분 30초 영상이 만들어졌다.

광고영상에 등장하는 구름배경의 도로와 산, 구도일랜드, 메리고라운드와 목마, 나무 등은 정교한 미니어처의 산물이다. 영상미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에 맞는 장면과 소품을 표현하는 창의적 원화개발이 필수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세계적 콘셉트 아티스트와 협업해 판타지 세계에 맞는 원화를 개발했다. 변신자동차인 '승



승카는 한 땀 한 땀 수작업을 통해 탄생됐는데 실제 차량 전체에 형형색색 털실이, 후면에 태엽이 부착됐다. 또한, 로봇복장의 아빠, 공룡의상을 입은 엄마와 히어로로 변신한 아들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한 장면처럼 판타지 세계에서 우리 세대의 꿈과 추억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 광고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영상에 대한 감정이입과 몰입도를 더해 주는 일명 '행복해송'이다. 과거 "나는 에쓰-오일 에쓰-오일 에쓰-오일~ 좋은 기름이니까!"의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의 '에쓰-오일송'을 통해 광고 삽입곡 전성시대를 이끈 우리회사는 기존 광고 삽입곡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선율과 속삭이듯 행복을 꿈꾸는 노래가사가 1분 30초간 울려 퍼진다.

"지구의 맨 끝에 있는 걸까? 나만의 파라다이스, 세상의 지도에는 없는 곳. 매일 밤 꿈꿨어. 누구도 달려보지 못한 그 길, 그 위를 나는 날 만났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난, 에쓰-오일과 함께, 다시 꿈을 꾸는 거야. 난, 에쓰-오일과 함께, 난 행복해."

광고 속 구도일패밀리를 주인공으로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새로운 공간도 창조됐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를 구현해 에쓰-오일에서 주유하는 행위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힐링과 위안을 찾는 가치 있는 일임을 전달한다.

구도일패밀리의 안내에 따라 행복한 상상이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 '구도일랜드'는 3개월에 걸쳐 수많은 스태프의 땀과 광고제작 노하우를 총 동원한 가운데 고화질의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1분 30초 영상 장면과 스토리는 '구도일동화 컬러링북'으로 제작된다. 컬러링북이 부모·자녀의 소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일동화 컬러링북'은 소비자들에게 색칠하는 재미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말부터 총 6천400명의 고객에게 '구도일동화 컬러링북'을 제공하는 '컬러링 콘서트'와 '주유연계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코닉 캐릭터 '구도일패밀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2006년 광고 삽입곡, 2012년 캐릭터 '구도일', 2015년 '구도일패밀리'와 같이 우리회사는 업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마케팅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거듭해왔다. 이제 '구도일'은 마스코트를 넘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생활 속 캐릭터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아이콘을 향해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판타지 애니메이션 광고에 이어 '구도일패밀리와 약당 간의 박진감 넘치는 대결을 그린 '구도일패밀리 스팟 애니메이션 시즌'이 9월에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노출될 예정이다. 황당하지 않은 있을 법한 즐거운 상상.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소비자의 마음속 '러브마크'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성실한 하루로 미래 그리는 오늘

성실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며 업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공장 안정운영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원에 대해 표창이 시행됐다. 회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길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미래 성공에 대한 확신은 더욱 굳건해진다.

운영총괄 우수사원 표창



공정 운전상태를 점검해 유황회수공정의 계기 오작동을 신속하게 파악 조치함으로써 공정을 정상화하는 한편 환경규제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처

김철제(정유1과)



중질유분해시설 에너지변환설비의 긴급 철야정비 시 위험요소 사전 인지로 적절히 조치하고 작업 일정 작성, 전문인력 배치 등의 효율화로 정비기간을 단축

조윤래(기계2과)



경유탈황시설인 MHC(Mild Hydro-Craker)의 SUPER프로젝트 공사 생산부 전담자로서 안전작업 관리를 강화해 설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

김정훈(수소2과)



특고압 변압기 관련한 기존 단말재의 결함을 밝히고 개선된 신규 단말재 도입과 교체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전력공급 설비 신뢰성 향상

서철진(전기과)



제1 파라자일렌 공정 중 촉매 교체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기존 처리 가능한 용량을 확대하고 공정 내 열원으로 사용되는 기름의 가열로 효율 개선

민홍식(Aromatics공정팀)



중질유분해시설 에너지변환설비의 긴급 철야정비 시 촉매재생기 내부의 설비 손상을 조기 발견하고 기간 내 성공적으로 보수·보강해 공정 정상화

이동학(검사2과)



당목, 해안매립지 등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안전사고 없이 토양·해상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 밖 지역의 안정 운영에 기여

전유태(제품운영2과)



RUC·ODC프로젝트 기공식, 사우디아람코 이사회 공장 방문, 신분관 준공식 등 행사·의전 업무를 주도면밀히 추진해 대내외 이미지 제고

심규익(총무과)

S-OIL NEWS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연료유(경유) 부문
하이세탄 S-OIL 경유

경유 한국능률협회 선정 '고객가치 최우수상품'

우리 경유 제품이 소비자의 직접 평가를 통해 단연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이 주관하는 '2016 더 프라우드(THE PROUD) 대한민국 100대 상품'에서 우리 경유는 연료유 경유 부문 1위인 '고객가치 최우수상품'으로 선정됐다. 이 결과는 20~49세 경유 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KMAC의 온라인 소비자조사에 따른 것이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더 프라우드'는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평가로 '주목받는 신상품', '고객가치 최우수상품', '대한민국 명품' 부문의 대한민국 100대 상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구매 준거를 제공하는 상품평가 제도다. 이 가운데 '고객가치 최우수상품'은 산업군별 대표 상품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한 성과를 평가해 선정된다.



최고급 윤활유 'S-OIL 7' 신규 광고 이벤트

우리 프리미엄 윤활유 브랜드인 S-OIL 7의 새로운 광고가 케이블 TV·라디오에 공개돼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인터넷과 구전을 통해 화제를 낳고 있다. 우리회사는 광고 동영상 속 숨은 주인공을 맞히는 이벤트를 8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주유권 각 3만 원을 증정한다. 광고는 '엔진을 깨우는 힘!'을 슬로건으로 좋은 엔진오일인 S-OIL 7이 차의 본질인 엔진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빼대만 남은 차를 되살린다는 스토리를 흥미롭게 시각화해 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리미엄 윤활유 브랜드로서 가진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S-OIL 7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대응해 엔진에 요구되는 5가지 기능(연비 향상, 환경친화, 운전 원활, 엔진 보호, 불순물 제거)을 최적화하고 자동차의 주행기능 개선, 운전자 만족도 향상을 포함한 고객가치 달성의 의미를 담은 프리미엄 윤활유 브랜드다. 광고 동영상과 이벤트 상세내용은 보너스카드홈페이지(www.s-oilbon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 '구도일패밀리 이모티콘' 배포

뛰어난 영상미와 작품성을 담은 새 광고캠페인이 7월 15일 공개된 데 이어 모바일 메시지에 기반을 둔 '구도일패밀리 이모티콘'이 새롭게 배포된다. 8월 16일부터 2주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는 새 이모티콘은 신규 광고캠페인의 판타지 콘셉트에 맞춰 12종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특히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초당 프레임 수를 대폭 늘려 생동감을 배가했다. 카카오톡 '친구추기'를 통해 'S-OIL 플러스친구' 계정과 친구를 맺은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 제공되며, 앞서 플러스친구를 맺은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자동 배포된다. 이와 함께 이모티콘을 사용한 채팅방 인증 사진으로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거쳐 디제이 구도일 블루투스 스피커, 구도일 보조배터리를 선물 받을 수 있다.

우리 딸이 짜장면을 사줬어요

“엄마, 월급 됐어요...”
 첫 월급 탄 날, 식구들에게 짜장면을 사줬어요.
 짜장면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이가 월급을 탈 줄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에스-오일과 굿윌스토어가 함께하는 중고 의류 나눔 캠페인

- 기증방법 : 뒷 면의 기증가능한 품목 목록을 참고하여 주유소에 설치된 기증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기증문의 : 02-4913-9191 (의류, 집회 외 품목은 전화주세요)



주유소 중고의류 나눔 캠페인 확대 시행

우리회사가 주유소 중고의류 나눔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4년 6월 착수한 이 캠페인은 장애인 채용 사회적 기업인 굿윌스토어와 함께 주유소 거점으로 중고의류를 수거·기부하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다. 직영주유소 3개소로 시작한 중고의류 나눔 캠페인은 지역주민 참여로 우리 계열주유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왔다. 특히 굿윌스토어에서 재활용 판매되는 중고의류가 저소득 장애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호평 속에 올해 지역주유소 14개소가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 이들 주유소에 중고의류를 5점 이상 기증한 고객에게는 무료 세차권을 지급하며, 의류 재활용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급여로 지원된다.

중고의류 나눔 수거함 설치 주유소

스카이주유소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457	서울시 강서구 벌말로 281	덕성주유소 경기도 의왕시 덕영대로 20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69
유림주유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76	서울시 강남구 밤곡개로 215	산뜻주유소 경기도 의왕시 교산로 65	e-푸른주유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2
하나주유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236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39	청강주유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59	백경주유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243-1
㈜신안석유주유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312	새광명주유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15	검단신도시주유소 인천시 서구 완정로 111
참솔에너지주유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448	경릉주유소	*** 2016년 10월 설치 예정



운영총괄 기술 스터디

운영총괄이 부문별 기술 스터디를 시행해 역량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기술 스터디는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과 업무 지식 공유로 하위 직급 엔지니어를 조기 육성하고 엔지니어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6~7월까지 공무부문, 공장혁신·기획 부문, 정유생산관리 부문, 설비관리 부문에서 업무 개선을 위한 주제연구발표와 외부 교육 참가자 보고 세션이 진행됐다. 또한 각 프로그램 종료 뒤에는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해 선후배 엔지니어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스터디는 올해 하반기에 정기보수 등 공장 일정을 감안해 지속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교육관리시스템(LMS)의 학습자료실을 통해 임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임직원 동정

임원동정

- 7.20 김학용 전무(Controller) 퇴임
- 7.21 방주완 전무(재무본부장) → 전무(재무본부장 겸 Treasurer)
김명수 상무보(Treasurer) → 상무보(Controller)

인사동정

보직변경

- 8.1 권영철(계장, 계전부 계기2과) → 계전부 계기2과 선임계장
조선제(계장, 계전부 계기2과 선임계장) → 계전부 계기2과
- 8.26 신태철(2급, 포항지사) → 동부영업지원팀
박진홍(2급, 창원지사) · 이기철(3급, 포항지사) → 대구지사
박준규(2급, 안동지사) → 구미지사
송동철(2급, 구미지사) · 이영목(2급, 대구지사) → 안동지사
김영진(2급, 대구지사) · 강성우(3급, 안동지사) → 포항지사
박문석(2급, 동부영업지원팀) · 천준길(2급, 동부네트워크관리팀) · 이철수(3급, 진주지사) → 부산지사
김지영(2급, 부산지사) · 박상진(3급, 진주지사) → 창원지사
양창남(3급, 부산지사) → 울산지사
변준석(3급, 울산지사) · 이호동(3급, 창원지사) → 진주지사
이용문(OS M급, 포항지사) → 동부네트워크관리팀

해외유학 파견

- 8.1 조성환(3급, 올레핀사업기획팀) → 인력개발팀 부(휴직)
- 8.8 김현민(4급, 분해공정부 RHDS공정과) · 김진혁(4급, Aromatics공정팀) → 인력개발팀 부(휴직)

해외유학 파견 복귀

- 7.15 권창환(3급, 인력개발팀 부) → 경영기획팀

퇴직

- 7.22 서준호(5급, 시운전2팀)
- 8.2 박시연(회계팀)
- 8.8 유승한(5급, 감사부 감사2과)

부음

- 7.8 양태성(HYC/LUBE공정과) 병모
손진희(총무과) 병모
- 7.10 송민순(직영주유소관리팀) 부친
- 7.11 김도균(유회생산2과) 모친
- 7.12 임종인(IT운영팀) 부친
조보람(설계3과) 조모
- 7.13 심환승(생산최적화팀) 병모
최근동(유회생산2과) 조모
- 7.24 최상배(Aromatics생산2과) 조부
- 7.30 유근찬(생산구매지원팀) 모친
- 7.31 김육현(유황1과) 병부

결혼

- 7.24 정재업(정유Heavy제품팀)

대 이은 친절과 노하우로 승부한다

테크노주유소

모든 것이 새것인 계획도시.
테크노주유소 역시 새롭게 길이 난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동네와 비슷한 시기에
터를 잡았다. 겉보기에는 이제 막 개점
4개월 차에 불과한 이곳은, 사실 훨씬 오랜
역사와 비결을 간직하고 있다.

오직 서비스 정신으로!

테크노주유소 사무실 벽면 한쪽에 걸려있는 종이 한 장. '기본 근무 자세'라는 제목 아래에는 15개 조항에 달하는 근무 수칙이 빼곡히 적혀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그 자체다. 개점을 축하하며 이 글을 선물했다는 이는 테크노주유소 박준규 대표의 어머니다. 박준규 대표의 어머니는 대구 시내에서 20년째 우리 계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덕택에 주유소 돌아가는 사정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박준규 대표다.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주유소를 4년 정도 맡아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을 사업 밑천 삼아 오늘에 이른 만큼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상 멘토이기도 한 어머니의 후원이 든든하기는 했지만 홀로서기는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애초에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지어진 신도시였기에 유동인구는 둘째치고 먼 거리를 왕복하며 출퇴근을 해줄 직원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규 대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박 하루 10시간 이상씩 주유소에 상주하며 직접 고

왼쪽부터 최중환 주유원, 박준규 대표, 손준호 주유원



14



객과 직원을 만났다. 근면·성실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원래 어떤 일이든 시작은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라기보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하며 솔선수범하고자 노력했죠.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공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차도 많이 늘어났고, 주유소 뒤편에 숙소를 구한 덕분에 직원들 출퇴근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번창할 일만 남은 거죠.”

정에 끌려 다시 찾는 주유소

박준규 대표의 꿈은 테크노주유소를 정에 이끌려, 마음이 동해 다시 찾게 되는 주유소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박준규 대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고객을 맞이한다. 고속 도로를 가로질러 오는 동안 차 유리창에 붙은 날벌레들을 닦아 고객들에게 환한 시야와 기분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박 대표의 진심이 담긴 사소한 배려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잠깐 숨을 돌리는 동안 점점 깨끗해지는 유리창을 보고 기분전환이 됐다며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굳이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라도, 단순히 고객의 얼굴과 주유 습관을 기억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준규 대표는 테크노주유소가 그저 기름을 넣기 위해 잠깐 스쳐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기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테크노주유소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 230
전화 053-614-1152

우리 주유소 주변 여행지
박준규 대표의 강력 추천!



국립대구과학관

테크노주유소 바로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은 놀이를 통해 쉽게 과학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학 놀이터다.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시간대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상설 전시 관람 코스를 추천 및 제공한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는 로봇과 인공지능 로봇을 주제로 한 에듀테인먼트[교육(Education)+오락(Entertainment)] 특별 기획 전시인 ‘슈퍼로보월드’전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과의 대결, 드론 조종사,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일정 및 정보는 국립대구과학관(www.dnsm.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6길 20 **문의** 053-670-6114
교통편 • 시내버스 대곡역에서 출발 시 : 급행 4번(약 60분 소요), 급행 8번(약 30분 소요)
• 시외버스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시 : 달성 8-1번(약 20분 소요), 달성 8번(약 30분 소요)

TIP. 상설 전시관 관람 추천 코스

- 1 강에 사는 생물(상류/중류/하류)
 - 2 빛으로 그려보기
 - 3 미래 소재(고어텍스, 색이 변하는 옷)
 - 4 한의학의 발견
- 관람 약 40분 소요**

영원한 내 편! 사랑 넘치는 우리 가족

경리와 손길상 사우 가족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아들,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온 딸까지
손길상 사우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날.
오랜만에 마주한 네 식구의 오붓한 시간을
응원이라도 하는 듯, 며칠 동안
이어진 장마로 흐리던 하늘에
'반짝' 해가 떴다.

12년의 기다림

손길상 사우가 우리회사에 몸을 담은 시기는 지난 1992년부터다. 그동안 수출입통관을 비롯한 전 표, 즉 돈의 흐름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진행해왔다. 꼼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벌써 24년째 이어오고 있다. 당연히 직장에서는 베테랑일 수밖에 없는 손길상 사우가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물었다. 사보 촬영을 계기로 스스로 어떤 아버지자 가장이였는지 많이 생각해봤다는 손 사우는 고민의 끝에 '대단히 자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무관심한 것은 아 닌, 그야말로 대한민국 평범한 아빠'라 결론내렸다.

"업무도 바쁘고 모임도 많다 보니 실제로 집에서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이 사진을 찍은 이후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12년이나 지





난 것도 비슷한 이유겠지요.” 손길상 사우가 내민 것은 지갑에 넣을 수 있도록 작게 인화된 가족 사진이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작은 것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여전한 사진을 찍어두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한마디 말보다 눈빛으로

아내 이은영 씨가 몇 장의 사진을 더 꺼내 보인다. 모두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이다. “사진을 그리 많이 찍지도 않았지만, 막상 이렇게 꺼내본 것도 참 오랜만이었어요. 덕분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났네요.” 밝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던 남매가 따라 웃는다. “어렸을 때는 돌이 참 많이 싸웠어요. 돌이 투닥거리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찍힌 거고요.” 이은영 씨가 가리키는 사진 속에서는 남매가 모두 손을 들고 발을 서고 있다. 두 사람 다 매우 억울한 표정이다. “이렇게 싸웠는데도 항상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애가 남다른 거긴 하죠.” 손길상 사우는 웃으며 다른 한 장의 사진을 내려다본다. “이건 밀양 표충사 가서 찍은 겁니다. 이날 거수경례하는 법을 알려줬었는데 마침 오늘 군복을 입고 온 걸 보니 가르친 보람이 느껴지네요.” 사진 프레임 속에서 밖으로 시선을 옮기는 손길상 사우.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가 오늘따라 남다르다. “이제 아이들도 곧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특히 베풀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야도 넓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7년 홍콩 여행은 손길상 사우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을 실천으로 옮긴 결과이기도 하다.

이은영 씨의 회상에 따르면, 출발 하루 전 아이들은 너무 들떠서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는 그런 모습의 아이들을 보는 게 어떤 멋진 풍경을 보는 것보다 즐거웠다고 말

한다. “부모 입장에서야 다른 것보다 우선 아이들이 먼저니까요. 아이들의 들뜬 표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억에 남을 여행이었어요.” 이은영 씨의 말에 손길상 사우도 얼굴을 마주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매는 아직도 애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세상 어떤 부부보다 행복해 보인다며 미소 지었다. “저희 부모님께서 캠퍼스 커플이셨대요. 그래서 저도 꼭 캠퍼스 커플이 돼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오빠 병국 씨의 말에 주희 씨도 그간 생각으로만 간직해왔던 소망을 전한다. “전 결혼을 하면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동시에 꼭 엄마 닮은 딸을 낳고 싶기도 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일 거예요.” 주희 씨의 솔직한 이야기에 온 가족이 박장대소를 터뜨린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머금은 손길상 사우 가족의 모습이 햇살처럼 화사하다.



꿈을 위해 다시 태어나다

F R I D A K A H L O

프리다 칼로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

프리다 칼로(1907년 7월 6일~1954년 7월 13일)가 손에 가위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다. 그녀는 남성용 구두를 신고 커다란 남성용 양복을 입고 있다. 바닥에는 잘린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건 당신의 머리카락 때문이야. 이제 당신은 머리카락이 없으니 난 당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아'라는 당대 유행가 가사의 한 소절이 훑날리듯 쓰여있다.

칼로의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사랑했다. 스스로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잘라내 버린 그림 속 칼로의 행동은, 더 이상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감정은 분노, 원망, 슬픔, 저항으로 가득 찬 그녀의 노동자 속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칼로는 키가 크고 비만이었던 남편의 커다란 옷을 여전히 걸치고 있다. 여성성을 거부하면서까지 벗어나고자 했지만 끝내 떨치지 못한 디에고에 대한 미련과 애증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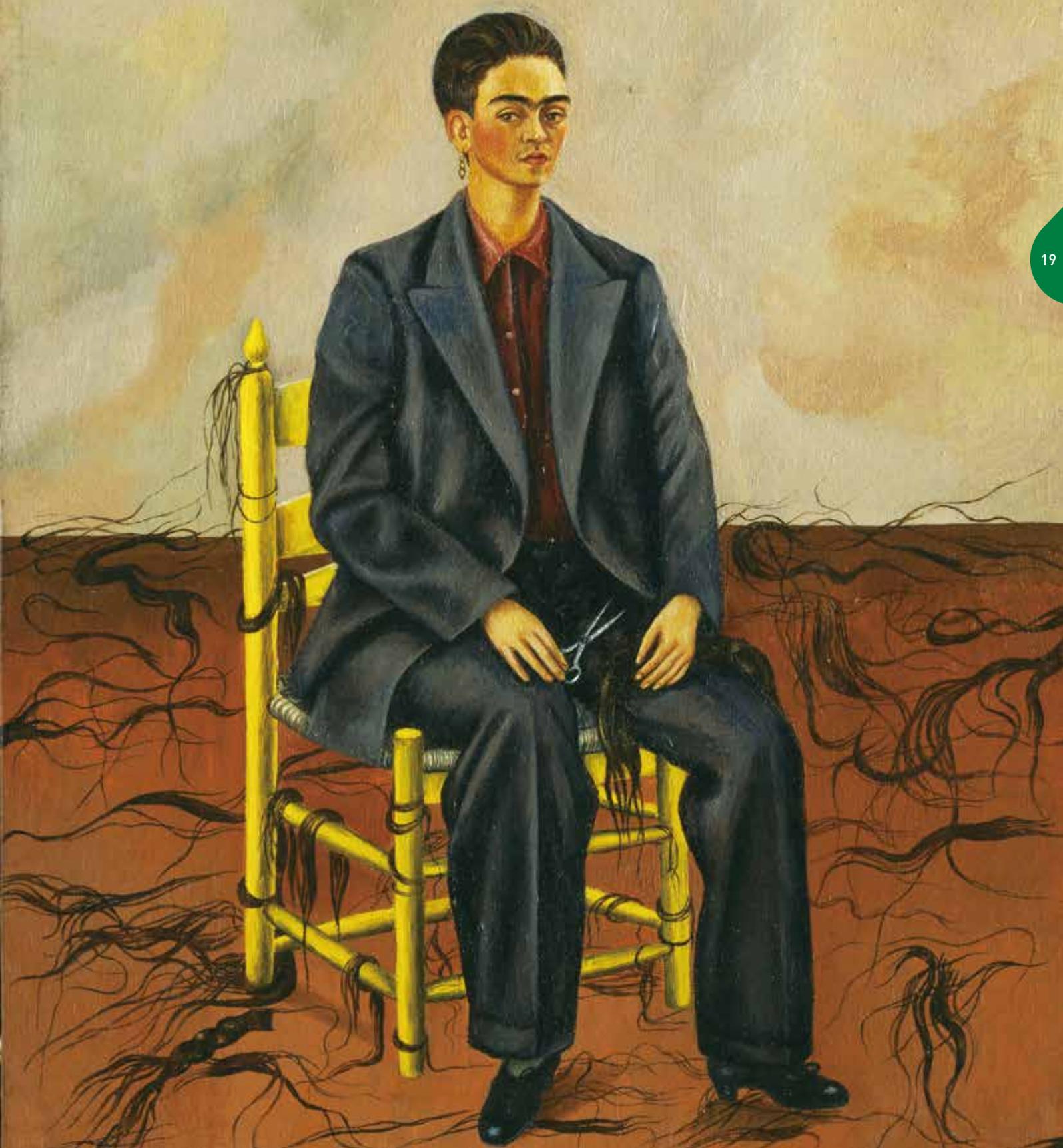
6세 때 소아마비를 앓은 이후 오른쪽 다리를 절단 칼로는 18세 때 전차 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치게 된다. 평생을 병상에서 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하지만 30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대수술은 가혹한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칼로는 훗날 남편 디에고와의 만남을 일컬어 '내 인생의 두 번째 대형사고'라 표현했다. 당시 그녀는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이자 위대한 공산주의자로 명망 높던 리베라에게 푹 빠져있었다. 그녀의 적극적인 구애와 천재적 재능에 매료된 리베라는 21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된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결혼 전부터 유별난 여성편력을 자랑했던 리베라는 수십 번의 외도 끝에 칼로의 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른다.

칼로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정점을 이룬 최악의 상황에서 완벽한 자립을 결심한다.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리베라의 아내, 여자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의 모습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관통한 두 가지 고통을 제재 삼아 작품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이 그림 역시 이혼 직후 '진짜 나'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를 담아낸 작품 중 하나다. 칼로가 남긴 작품 중 3분의1에 달하는 55점은 자화상이다. 그녀는 거대하고 위대한 것만을 아름답다 여기던 당대 남성 화가들의 인식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했다.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나다운 것, 가장 평범한 존재가 주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자신을 선택했다.

프리다 칼로는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을 통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 가족에 대한 의무 그리고 스스로를 옥죄던 사랑과 이별할 것을 선언했다. 진짜 나를 찾기 위한 과정에는 건디기 힘든 성장통이 수반되곤 한다. 하지만 이상과 꿈,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 그녀처럼 말이다.

1940년 작
캔버스에 유채
40*27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

Ahora que estás pelona, ya no te quiero.



Lemon Geranium

작은 꽃 진한 향기 레몬제라늄

레몬제라늄(Lemon geranium)

품종에 따라 여러 가지 향을 가진 센티드제라늄(Scented geranium),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레몬제라늄이다. 레몬을 연상케 하는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향기와 귀여운 꽃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허브 중 하나다.

작은 꽃, 진한 향기

레몬제라늄은 아프리카 남동부의 마다가스카르 섬 동쪽에 있는 레위니옹 섬을 원산지로 하는 센티드제라늄의 한 품종이다. 센티드제라늄은 세계적으로 200여 종이 넘는 변종이 있으며, 품종 이름은 대부분 닳은 꽃이나 열매, 향신료 등에서 따서 붙인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센티드제라늄 중 하나가 레몬제라늄이다.

레몬제라늄은 넓은 잎과 줄기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흰색 털이 조밀하게 분포된 것이 특징으로, 만지면 독특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5개의 잎으로 된 분홍색과 흰색 꽃이 피고 그 가운데 부분에 암적갈색의 무늬가 있다.

레몬제라늄은 이름대로 상큼한 레몬 향기가 난다. 발향이 좋아 중소형의 화분 하나라도 거실 가득히 향을 채울 수 있다. 향수나 화장품, 비누의 향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얼굴용 미용제품과 마사지 오일의 원료로 특히 각광받는다.

레몬제라늄은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둔 만큼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 약하고, 습기가 많은 곳을 싫어한다. 때문에 겨울철에는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월동을 하는 것이 좋다.

예뻐지는 향기, 탁월한 효능

레몬제라늄에는 피부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 보유한 수분을 유지시키는 효능이 있어 향료뿐 아니라 화장품의 중심 원료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주로 꽃과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형태로 쓰이며 보습 효과를 강조한 비누나 보디로션, 얼굴용 보습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항우울 작용과 강장 작용을 하는 레몬제라늄의 향기는 입욕제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소화를 도와 피로를 회복시킨다. 리프레쉬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마사지 오일로도 많이 쓰이며 향초, 디퓨저 등 기분전환을 위한 방향제 류에서도 인기 있는 원료 중 하나다.

레몬제라늄 오일을 가볍게 귀 뒤나 목 뒤에 발라주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평소 땀이 많은 사람은 속옷을 입기 전 레몬제라늄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착용하면 체취를 감싸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화장수에 레몬제라늄 에센셜 오일을 섞으면, 레몬제라늄의 살균 효과가 더해져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햇빛에 노출돼 화끈거리는 피부에 분사하면 즉각적인 진정 효과와 보습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오일의 성분이 자외선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렬한 한낮보다는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레몬제라늄의 어린잎은 샐러드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유의 감촉 때문에 미용 재료와 향료만큼 널리 쓰이지 않는다.



Mini Interview

고마운 사우에게 보내는 특별한 선물



박동일 사우와 신대광 사우는 꼬박 6년째 서로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동일 사우는 처음 입사했던 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자상한 모습으로 자신을 아껴준 신대광 선배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표현하고자 레몬제라늄 화분을 준비했다.

“신대광 선배님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로 대해주셨답니다. 격 없이 장난도 치는 사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은 6년 전과 똑같습니다.”

“거의 매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었다 시피 해요. 직속 후배인 데다가 책상까지 바로 옆으로 이어져 있으니깐요. 언제나 밝고 성실한, 동생 같은 박동일 사위가 제가 과거에 했던 실수나 고민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배로서 특별한 것 없는 데 참 고맙네요.”

박동일 사우(기계2과)

신대광 사우(기계2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프렌즈 홍콩·마카오〉

CEO실 오혜린 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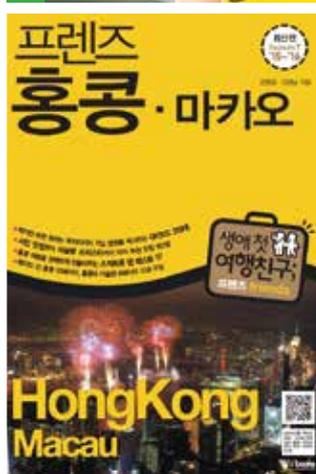
튼튼한 여행 친구를 자처하는 〈프렌즈〉 시리즈는 QR코드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이라는 최신 기술을 통해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신개념 여행서다.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신기한 책

지난 2012년 12월 입사한 뒤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얼마 전 CEO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한여름이 됐네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결정된 휴가 일정에 맞춰 부랴부랴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됐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행이었기에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내 자료실로 찾아가 〈프렌즈 홍콩·마카오〉를 빌렸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웹을 통해 훨씬 방대하고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3일 앞으로 다가온 빠듯한 출국 일정에 대비해 현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빠르게 훑어보기에는 역시 책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 준비를 이제 막 시작했거나, 또는 저처



* 이 책은 다음호 도서 소개의 주인공에게 전달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넓은 땅 중국인 성격지도

왕하이팅

중국 국민들의 성격을 30여 개의 행정구역별로 나눠 분석하고 낱말이 파헤쳤다.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나라 중국의 국민들이 모두 같은 성격일 수 있을까? 저자인 왕하이팅은 관련 사진과 설명을 덧붙여 다양한 중국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을 30여 개로 나눈 다음 각 행정구역별로 사람들의 전체적인 성격과 사고방식, 생활 습관, 문화적 특징을 전면적으로 해부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현지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행지에서 겪게 될 인상과 경험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일생에 한번은 홍콩을 만나라

김동운

홍콩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생생하게 전하는 여행서로, 역사와 문화까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홍콩의 오아시스 라마 섬, 대표적인 서민 마을인 섹킵메이와 삼수이포, 홍콩의 과거를 보여주는 틴수이와이, 화려함과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마카오 등 홍콩의 명소들을 저자의 색다른 시선으로 흥미롭게 소개했다. 중국 반환 전후 홍콩인들의 삶이 생활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담섬을 먹는 문화 등 역사적 지식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서점가 베스트셀러

경제·경영

1. CEO 박도봉의 현장 인문학(김종록 외 1명)
2. 1등의 통찰(하라이 다카시)
3. 명견만리(KBS 명견만리 제작진)
4.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클라우드 슈밥)
5. 내가 미래를 앞서가는 이유(사토 가츠아키)

인문

1. 동양철학을 말한다(이케다 다이사쿠 외 1명)
2. 미움받을 용기(후미타케 외 1명)
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채사장)
4.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5. 다시, 책은 도끼다(박웅현)

역사·문화

1.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설민석)
2.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설민석)
3. 톱 까놓고 재벌(이동형)
4. 조선왕조실록 4(무적픽크 외 1명)
5. 설민석의 첫출발 한국사 연표(설민석)

2016년 8월 교보문고 집계 기준

럼 준비할 시간이 없는 여행자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정 구성부터 맛집, 쇼핑까지 모든 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기 때문에, 수십 번의 클릭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상된 교통요금, 새롭게 문을 연 식당과 호텔, 떠오르는 명소와 쇼핑물 등의 최신 정보는 물론 휴대가 간편한 극정밀 홍콩 지도를 따로 첨부해 여행의 편의를 돕습니다.

특히 최신판 개정을 통해 '홍콩 여행 뉴스' 꼭지를 신설함으로써 매일 빠르게 변하는 홍콩의 소식을 한눈에 알기 쉽게 담아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안내서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우산 혁명'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며 여행자의 식견을 넓히는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은 "여행에서 지식을 얻고 돌아오고 싶다면, 떠날 때 지식을 몸에 지니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고 느껴지는 법이라는 뜻이겠지요. 혹시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왠지 모르게 망설여진다면,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사투가 있다면 떠나기에 앞서 이 친절한 안내자를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미리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 기억에 남는 최고의 정보 】

찍기만 하면 OK!
편리한 QR코드

책 속에는 여행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 315개가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찍으면 디지털 지도와 연계된 '길찾기', 목적지를 현지 글자로 변환하는 '택시기사에게 보여주기', 해당 업체로 '전화걸기' 등의 기능을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낯선 곳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웃기는 경영자

사우스웨스트항공 CEO 허브 켈러허

1973년 창업 이래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매해 이익을 올린 유일한 미국 항공사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전 CEO인 그는 정비공은 물론 사무실 직원 누구나 자사의 비전과 가치, 철학을 회장인 자신보다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공헌한다.

“우리 목록에 들기 위해서
리더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은
직원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허브 켈러허
1931년 3월 12일 미국 출생
1971~2001년 사우스웨스트항공 전 CEO



CEO 허브 켈러허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한 사람, 모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 행복을 우선 챙기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웃기는 경영자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전 CEO 허브 켈러허다. 그는 “고객은 항상 옳다는 말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기내에서 폭음을 하고, 이유 없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은 과감하게 거절하라”라고 주장했다.

블루오션을 개척하다

허브 켈러허는 항공산업의 오랜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적용했다. 대륙 간 장거리 운항, 시장점유율을 중시하는 ‘정석’ 대신 국내 단거리 노선, 논스톱 운항, 낮은 요금, 높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종을 구매할 때에도 유리한 가격 협상, 낮은 재고 유지비용, 정비 품질을 고려해 보잉 737 하나로 통일했다.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하고 단거리 고객이 요구하는 높은 안전성, 정시 발착, 낮은 요금에 주목했다. 그는 다른 항공사가 아닌 지상의 자동차를 경쟁자로 삼았다. 그 결과 운항 초기 델러스-샌안토니오 간 기존 항공사 요금이 60달러인데 반해, 사우스웨스트는 겨우 15달러에 서비스를 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끌어왔다.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는 블루오션 전략을 이미 30년 전에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사우스웨스트항공의 절대 장점이 됐고, 그 결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은 30여 년 동안 매해 이익을 올린 유일한 미국 항공사가 될 수 있었다.

일은 즐거워야(Fun) 한다

허브 켈러허는 ‘유머는 조직의 화합을 위한 촉매제’라며 ‘일은 즐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점장은 오찬장에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으로 나타나기, 청바지를 입고 이사회에 참석하기, 토끼 분장을 하고 출근길 직원 놀라게 하기 등 그의 편 경영 사례는 무수하다. 이렇게 경영자의 근엄한 권위를 던져두고 그가 얻으려고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는 내면에서부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만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 허브 켈러허는 수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만큼 그 역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봉사한다. 일요일 새벽 회사 청소부 휴게실에 들어가 도넛을 나눠주고 작업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비행기를 청소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자신이 리더로부터 인간적 대우와 사랑을 받게 될 때 외부 고객들에게 같은 사랑을 베풀게 된다고 한다.

이로써 1994년 어느 날 USA 투데이에는 다음과 같은 전면광고가 실렸다. ‘우리는 허브 씨에게 우리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주시고, (중략) 들어주시고, 이윤이 남는 항공 회사로 키워주시고, 휴일 파티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보스가 아니라 친구가 돼주신 것에 대해 경영자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광고는 허브 켈러허 리더십에 감복한 1만6천여 명의 직원들이 스스로 비용을 추려해 실은 것이다.

Mini Interview

“즐거운 직원이 즐거운 고객을 만든다!”

허브 켈러허는 즐거운 경영을 늘 강조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전 직원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춤을 추고, 타사와 광고 문구 사용권을 두고 팔씨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일이 심각해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을 즐긴다면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됩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실제로 정시 운항, 고객 만족, 수하물 배송 분야에서 3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받아 즐겁고 긍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고객을 만족하게 하는 영업 담당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신입사원 서성한





육지와 가까운 낮선 섬

경남 창원 실리도·저도

01

오염되지 않은 남해안의 해안 전경과 청정바다 빛이 자랑인 실리도는 육지와 가까운 섬이자 볼락과 가지미 등을 잘 잡는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사진은 실리도 전경으로 왼쪽 작은 섬은 초애섬이다.

02

실리도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제2전망대 모습



02

미지의 작은 섬을 탐방하다

경남 창원 실리도

창원시(구 마산시) 구산반도 남동쪽 진해만 끝에 위치한 실리도(實利島)는 옛날 노부부가 10년 동안 매일 같이 나무를 심고 가꾼 나머지 온갖 열매와 과실이 섬 전체를 덮었다 해서 얻은 지명이다. 지금도 매실·딸기·밤이 많이 나는 이 섬은 원전항에서 하루 7번 다니는 실리도선을 타면 10분 뒤 달을 만큼 육지와 가깝다. 작년 초 섬을 일주하는 둘레길이 조성됐다. 간단한 차림과 가벼운 마음으로 남해안 도서 특성이 살아 있는 수려한 해안 경관과 상상을 통해 들어가는 아름다운 힐링의 세계를 현실에서 느끼기 위해 실리도 둘레길을 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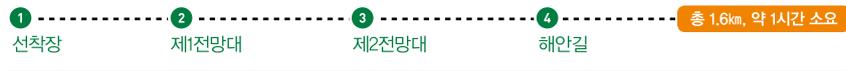
원전항에서 실리도는 직선상으로 400m가 채 안 되는 거리지만, 배는 초애섬을 돌아 면적 199,086㎡, 길이 약 750m, 해발고도 85m, 해안선 길이 2.8km인 실리도 선착장에 닿았다. 현재 50여 세대에 주민 120여 명이 포구 근처에 모여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삶을 이룬다. 주요 수산물로는 멸치·가지미·방어·갈치 등이고, 담치(홍합)와 굴 양식이 성하다. 매년 6월과 9월 풍어제를 지낸다는 선착장에서 가장 먼저 길손의 눈을 잡은 해양과 바닷속 풍경을 형상화한 푸른 색감의 벽화(빨간 꽃게·분홍 고래·검은 오징어를 익살스럽게 그려낸)를 보는 맛은 덩이다.

마을 중간쯤에서 시작된 둘레길은 골목 돌담길을 지나 아늑한 산속으로 이어진다. 잠시 숨을 고르려 뒤를 돌아보니 멀리는 거제도과 칠천도 해안이, 가깝게는 선착장과 갯벌 체험장으로 활용되는 초아도(초애섬)가 조망된다. 섬 모양이 '사람이 머리를 풀고 양다리를 뻗어 아이(兒)를 부르는 형상'이라 '슬픈섬'으로도 부른다. 아득한 옛날, 홀로 살던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개를 캐러 들어왔다가 물이 차는 바람에 정신 없이 건너와 보니 깜빡 아들을 놓고 온 것이다. 이런 연유로 여인은 두 다리 뻗은 채 아들을 애타게 부르며 통곡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실리도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때는 1904년 4월, 일본군이 러시아와 전쟁을 대비하려 포대를 지으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일제가 남긴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중 하나가 붉은 벽돌로 지은 한 건물 지하인데, 물이 부족한 섬에 주둔한 일본군이 물을 저장하여 사용한, 일종의 물창고로



TIP. 실리도 둘레길 코스



추측한다. 섬 남단부에는 실리도의 실질적 주인인 해군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 받아 살았고, 농경지는 해군에 세금(?)을 내고 이용했다. 그러나 이것도 옛말, 지금은 농토 대부분이 묵혀있어 잡풀들과 칠펥쿨만 무성하게 방치되어 적막함만 감돈다.

약간 경사진 오솔길 끝에서 나무 데크를 오르면 제1전망대다. 여기서는 마을과 포구, 섬 주변에 조성된 지역 특산물인 담치 양식장과 점점이 떠 있는 선상 콘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평안한 길이 조금 가파른 곳에 이른다. 그러나 나무 데크로 계단을 만들어 남녀노스 걷는 발길에 전혀 부담 없다. 더욱이 오솔길에는 흙이 쓸러나가지 않도록 지반 보호매트를 깔아 발걸음은 마치 구름을 걷는 듯 가볍다.

마을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제2전망대는 실리도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보는 곳이다. 시야가 트여 해맞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젊은 야영객들이 알음알음 즐겨 찾는다. 넓은 테크 옆에 서 있는 키 큰 소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며 멀리 거제도는 물론, 부속 섬인 수아방도와 황덕도·대광이도·소광이도·가조도(옥녀봉)와 함께 진해가 가까워선지 군함도 볼 수 있다.

제2전망대를 지나 내리막 데크 계단을 따르면 섬의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해안길이다. 해안길 옆으로 폐 어구들이 잔뜩 쌓여 있고, 길 끝은 마을과 연결된다. 제빵 나이 먹은 느티나무가 팔각정자 실애정을 품은 채 길손을 맞는다. 방파제 안쪽 계류장에는 큰 배뿐만 아니라 파라솔을 돛대처럼 세운 작은 조각배, 낚시용 전마선들이 서로의 몸을 묶은 채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태공들을 기다린다. 양중맞은 실리도 둘레길을 쉬엄쉬엄 돌아본 여정은 한 시간 남짓, 이제는 다시 물으로 돌아갈 시간에 나지막이 시인의 노래를 읊조리며 작은 배를 기다린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뜬 눈으로 살자

- <무명도> 이생진

배편

창원시 남쪽 끝 원전리 원전항에서 도선 이용
원전항~실리도 시간표

7:10, 8:15, 10:15, 12:20, 15:30, 17:30, 18:40

배삯

어른 왕복 4천 원, 그 외 왕복 3천 원(대절 가능)
문의

010-9239-3512, 055-222-3518



돼지섬에서 걷는 낭만 '비치로드'

경남 창원 저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동쪽 해안-옛 마산 남쪽 끝에 '돼지가 누워있는 모습'이라 하여 '돌섬'으로 불렸던 저도(猪島)는 두 개의 다리 즉, 2004년 12월 창원시 시조인 갯갈매기를 형상화해 새로 놓은 연륙교와 구 연륙교(1987년 설치)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 구 연륙교는 붉은 색 철제로 영화 '콰이강의 다리'를 연상시켜 그동안 '마산 콰이강의 다리'로 알려져, 연인들이 손 잡고 다리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속설까지 낳았다. 특히 2001년 노효정 감독의 <인디안썸머 (Indiansummer)>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고, 그 증표인 자물쇠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창원시가 구 연륙교 바닥을 강화유리로 교체, 파리 에펠탑과 중국 후난성 투명 유리 다리처럼 세계적인 '스카이워크'로 만드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길손은 다소 아쉬운 마음을 뒤에 두고 연륙교를 건너 하포주차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바다를 마주하며 걷는 '비치로드(Beach road)'가 그곳에 있어서다.

'비치로드(Beach road)' 들머리는 하포마을 정자 뒤 목재 데크 계단에서 시작된다. 정비가 잘 된 넓고 완만한 흙길은 나무 사이로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해안선을 따라 들락날락한다. 동쪽으로 쇠

TIP. 저도 비치로드(Beach road) 코스

제1코스 ① 하포주차장 ② 제1전망대 ③ 제2전망대 ④ 코스분기점 ⑤ 코스합류점 ⑥ 하포주차장 총 3.7km, 약 1시간 30분 소요 (초보자나 가족 단위 걷기에 적당)

제2코스 ① 하포주차장 ② 제1전망대 ③ 제2전망대 ④ 코스분기점 ⑤ 바다구경길 ⑥ 정상 가는 길-코스합류점 ⑦ 하포주차장 총 6.4km, 약 3시간 소요

섬이, 오른쪽은 육지가 끝나는 고래머리 해안절벽과 마주하며, 이정표대로 넓은 길을 따르면 절벽 위 제1전망대에 닿는다. 여기서서는 정면에 칠천도와 영산이 뚜렷하고, 고래머리와 거제도 사이로 가덕도 연대봉을 볼 수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저도는 월영대(月影臺) 남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었고, 〈해동지도(海東地圖)〉와 〈영남지도(嶺南地圖)〉 같은 조선 후기 고지도에는 월영대 앞바다에 저도를 그렸다. 또 〈조선지형도(朝鮮地形圖)〉에는 “마산 남서쪽 바다에 저도가 있다. 월영동, 월영대 앞에 있다”라고 하여 월영도(月影島)로도 불렀다.

저도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구릉성 산지가 뻗어 있고, 북동 해안은 경사가 완만하여 작은 만입(灣入)이 발달한 반면, 남서 해안은 작은 배도 접안하지 못할 만큼 가파른 해식애로 이뤄져 있다. 낙지·도다리·노래미 등이 많이 잡히고, 북동쪽 연안에서 홍합과 굴 양식이 활발하다.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안 뒷길을 오르면 삼거리, 하포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를 만난다. 왼쪽으로 직진하여 소나무 울창한 숲길을 지나 통나무 계단을 내리고 오르면 제2전망대로 향하는 계단길. 여서 잠시 다리섬을 한 뒤 급경사 오르막을 10여 분 더 오르면 다시 하포에서 오는 길과 만나는 삼거리다. '바다구경길'은 왼쪽으로 이어진다. 처음에 언급했듯 이 섬은 돼지가 누워있는 형상이다. '돌'은 돼지의 옛말인데, 다음의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김해 가락국 왕의 총애를 받던 미모의 여인 미호가 있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왕은 상금까지 내걸고 미호를 찾던 중 한 어부가 골포(骨浦, 원삼국 시대 마산·창원 지역)에서 보았다고 했다. 왕이 특사를 보내 환궁을 재촉하자 갑자기 먹구름이 오르면서 금빛 돼지로 변하여 무학산 큰 바위틈으로 사라진 뒤부터 여인들이 금돼지에게 자주 잡혀갔다. 왕은 군사를 동원해 생포하려 했으나, 바위틈에서 나타난 금돼지가 덤벼들어 군사들이 무기로 내리치니 금돼지는 불길한 구름이 되어 섬으로 날아가 사라졌다. 그 뒤부터 밤마다 섬에서 돼지 우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 고운 최치원이 월영대에 향학을 설치하고 살던 어느 날 밤, 괴이한 현상을 보고 섬을 향해 화살을 쏘니 빛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사라졌다. 이튿날 최치원이 섬으로 가 화살 쏘던 자리에서 제를 올리니, 그 뒤부터 이런 일이 없어졌다. 이 섬이 바로 돌섬이고, 제를 올린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어 후세에도 오랫동안 그 풍습이 이어졌다.

바다구경길은 규모가 작은 바닷가로 내려가 발을 적실 수 있는 구간이다. 또한 길옆으로 다양한 버섯류를 관찰하며 걷는 재미 또한 쟁쟁하다. 전망 좋은 장소에는 나무의자가 있어 다리섬 하는 순간 푸른 바다가 코앞으로 다가와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제1바다구경길에서 다시 500m 정도 순한 길을 따르면 울퉁불퉁한 바위로 된 제2바다구경길이다. 여서 400m쯤 더 가면 붉은 모래를 만나는 제3바다구경길을 지나면, 정상을 향하는 급경사 길 중간쯤에서 기묘하게 깎아 세운 장승들을 만난다. 문득 이렇게 경사 급한 곳에 장승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길손은 천천히 오르라는 장인의 배려라 생각하고 턱까지 찬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은 돌 하나 보태면서 숨을 갖는다. 다시 10여 분 오르면 능선 사거리, 왼쪽 오르막은 정상인 용두산(202.7m) 방향이고, 직진 내리막은 연륙교 방향이다. 발길을 오른쪽으로 돌려 오늘의 하산점인 하포주차장으로 향한다. 이제 능선길을 지나 순탄한 도로로 접어든 뒤 원점 회귀한다.

산책이라면 다소 가파르고, 등산이기에 좀 싱거운 느낌인 비치로드는 코스가 두 개다. 1코스는 급경사가 적어 초보자나 가족 단위로 걸기에 적당하다. 2코스는 전체적으로 완만하나 급경사길이 두세 번 반복되어 초보자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



03 저도 비치로드는 조금 가쁜 숨을 내쉬 각오로 길을 나서야 한다.

04 가파른 고갯길에 깎아 세운 장승들 표정에서 길손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05 규모는 작지만 바닷가로 내려가 해안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구간이 바다 구경길이다.



우리들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

나눔의 즐거움 깨달은 시간

임직원 자녀 자원봉사 캠프



본사 임직원 자녀 대상의 자원봉사 캠프가 7월 27일 소망재활원(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임직원 중·고교생 자녀 30여 명이 참가해 봉사에 관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며 값진 시간을 보냈다.

임직원 자녀 자원봉사 캠프는 방학을 맞은 임직원 자녀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고 자원봉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캠프를 마련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인권 교육, 장애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심화했다. 이와 함께 도자기 핸드페인팅 공예로 정서를 순화하는 차분한 시간도 곁들였다. 이번 봉사 캠프는 임직원 자녀들이 여타 청소년들과 어우러져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나눔 활동에 보람을 깨닫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봉사활동 어렵지 않아요!

장윤서(호성고, 직영주유소관리팀 장우익 사우 자녀)

고등학생이 돼 봉사활동을 탐색하던 중, 에스-오일을 통해 봉사 캠프에 참가했던 언니의 경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혹시 올해도 그런 기회가 있는지 아빠께 여쭙봤더니 흔쾌히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봉사에 앞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소망재활원 장애인들과 조금씩 가까워진 봉사 참가자들은 함께 점심을 먹은 후 핸드페인팅 도자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분은 오른손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작품을 만드는 대신 그분의 도자기 컵 위에 나무, 나비, 꽃, 열기구 그리고 얼굴을 그려드렸습니다. 어설픈 실력임에도 환한 미소를 보이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도자기 만들기를 마치고 장애체험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장애인의 생활이나 어려움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가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잡고 '내일 또 오는 거냐'며 아쉬워하는 분들의 모습에 그간의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이자 장애인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깬 소중한 시간을 선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두 번째 봉사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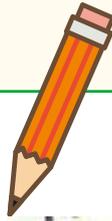
최영담(목운중2, 네트워크강화팀 최경식 사우 자녀)

몇 주전 아빠를 통해 봉사캠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봉사캠프가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번 봉사캠프를 통해 찾게 된 곳은 장애인들이 모여 살며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소망재활원입니다. 올해 역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알차게 꾸려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망재활원에 계시는 분들과 했던 공놀이와 핸드페인팅 도자기 만들기였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봉사캠프는 설명만 들으며 하는 일반적인 장애 이해 교육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막연히 '장애인이기에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는데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정말 잘못된 오해였다는 사실을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봉사캠프를 통해 얻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나중에는 더할 나위 없이 돈독해진 언니, 오빠 그리고 친구들까지! 봉사캠프에 함께한 귀중한 인연 또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값진 수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계속되길 바라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에스-오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



생명의 소중함 온몸으로 느꼈죠!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캠프 후기

아기 수달아 꼭 다시 만나자!

에스-오일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합니다. 평소 아끼던 동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일조하게 됐다는 뿌듯함뿐 아니라, 그동안 잘 모른다는 이유로 미처 관심을 쏟지 못했던 다른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수 있었다는 됐다는 설렘까지 더해져 며칠 전부터 자꾸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지킴이단에 참여하기 위해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발대식에 늦지 않게 참석하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고 서울에 도착했지만, 2박3일간 펼쳐진 일정 동안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가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에스-오일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첫날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민물고기에 대한 귀중한 생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조종천에서 진행된 활발한 민물고기 현장 체험을 마치고, 쥐라기 공원 같았던 청평 숙소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하늘다람쥐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둘째 날에는 영월 곤충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살면서 한 번 보기 힘든 여러 멸종위기 곤충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수하늘소 애벌레와 직접 마주하며 교감했던 순간이 인상 깊게 떠오릅니다. 다음 행선지는 고씨동굴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동굴에 가봤는데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자연의 신비에 잘 보존해야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가장 고대하던 수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수달이 무척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수달연구센터장님께서 수달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괴롭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 귀여운 녀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루빨리 자연 속에서 더 자주 만나게 될 날을 기약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천연기념물지킴이단 역시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선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부족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색다른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준 에스-오일 그리고 천연기념물지킴이단 활동이 제 인생에 있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환경지킴이로 다시 태어난 2박3일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할 때마다 막닥닥했던 한계 돌파를 위해 책상을 벗어나 현장에서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던 차에 에스-오일

이 주관하는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발대식을 마치고 2시간가량 버스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중앙내수면연구소였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물고기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생소한 어류의 이름과 습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캠프 마지막 날 하늘다람쥐에게 선물할 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하늘다람쥐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캐릭터를 그려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늘다람쥐는 이런 눈을 보면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재빨리 그림 위에 선글라스를 그려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돕고 싶다는 마음만 앞서우기보다는 먼저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얻은 캠프 첫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바로 영월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곤충박물관에서는 연구원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장수하늘소 애벌레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들을 만났습니다. 장수하늘소가 7년 동안 서식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부패시키고 있는 모습 등 혼자 왔다면 그냥 지나쳤을 진귀한 생태의 현장을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곤충박물관에서 나온 천연기념물지킴이단의 다음 목적지는 고씨동굴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며 다시 한 번 환경 수호 의지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화천에 있는 수달센터로 가는 동안 캠프 첫날 만들었던 하늘다람쥐 집을 설치할 만한 곳을 찾아 거친 비포장도로 돌레길을 탐색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하늘다람쥐 집을 매다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남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처럼 하늘다람쥐가 예쁜 집에서 건강히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늘다람쥐에게 집을 선물한 이후 우리는 수달의 생태에 관한 수달연구센터장님의 강의를 경청한 후에 귀여운 아기 수달을 직접 만나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달센터에 따르면 한강에서도 수달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니, 조만간 더 가까이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게 이번 캠프는 세계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에스-오일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소중한 순간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 계속될 활동 역시 열정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



우리는 숲 탐험가

분해3부
해밀어린이집 동행 숲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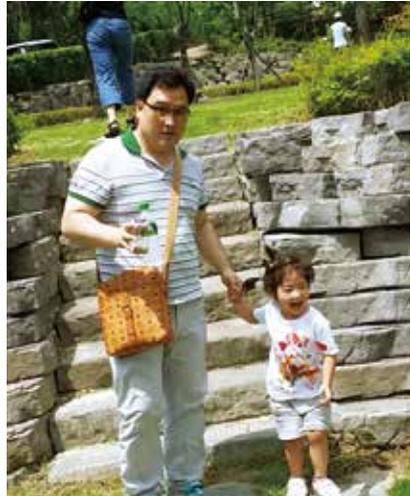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해밀어린이집 앞에서 해맑은 천사들과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저와 짝이 된 아이는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바깥 풍경이 보고 싶은 것인지 차유의 숲으로 이동하는 동안 졸곧 차창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시간도 잠시, 아이는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차츰 긴장을 풀고 다가와 주는 아이의 모습에 저 또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차유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조약돌과 나뭇가지 등을 활용해 리듬 악기인 '마스카라'를 만들어 흥겨운 연주를 해보기도 하고, '여름 곤충 되기' 체험을 통해 여름 곤충의 이름을 맞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짝꿍이 특히 좋아했던 곳은 다름 아닌 놀이터였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그네 타기에 그토록 환한 미소를 내비치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제 얼굴에도 저절로 웃음이 번져나갑니다.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고 해밀어린이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와 제 짝꿍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끈끈한 무언가가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짝꿍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혹시 오늘 하루 아이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해진 사람이 아이였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뜻깊었던 동시에, 잘 해주고 싶었던 마음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봉사활동 때도 즐겁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약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34



밝은 웃음
찾아주기 캠페인
'급여우수리' 나눔



건강한 내일 선물하는 작은 정성

희귀 난치질환 어린이 돌기 일환의 치료비 전달이 7월 11일 단국대병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에서 진행됐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속에 시행하고 있는 급여우수리 나눔의 이번 수혜자는 김초아 환아다. 올해 5월에 태어난 초아는 한 달 뒤인 6월 담도폐쇄증 진단에 따라 카사이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퇴원 뒤 손조롭게 회복하고 있다. 이날 회사를 대표해 초아와 가족을 만난 우리 직원들은 치료비 500만 원과 함께 특수분유를 지원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우리회사는 2009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와 희귀질환 담도폐쇄증에 관한 '밝은 웃음 찾아주기 캠페인' 협약을 맺고 저소득가정 어린이 환자들을 돕고 있다. 임직원 급여우수리 모금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후원금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8년 동안 담도폐쇄증 어린이 총 89명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했다.

한여름밤 열기 뽐는 청춘의 음악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무료공연
'인디록페스티벌'



7월 27일 본사 사옥에서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흥대 뮤지션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인디록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 티켓을 받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우리 임직원과 인근 직장인 등 300여 관객이 모였다. 관객들은 시원한 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린 록밴드의 화통한 연주와 노래에 무더위를 한방에 날렸다. 특히, 중년층의 지역주민들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디밴드의 공연을 직접 보고 들으며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우리회사는 2011년 6월 신사옥 입주와 함께 문화나눔 네트워크 '시루'와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선포한 이래 본사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무료 공연 무대로 개방하고, 국악·오케스트라·밴드 등 뮤지션과 인형극·마술 쇼·퓨전 타악·코미디언 퍼포먼스 등 예술가들을 초청해왔다. 본사 사옥 거점의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무료 공연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공장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자율 독서 동아리' 활동

책으로 소통하는 우리 사이

글_ 박은정(기술교육팀)

공장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이 임직원의 자율적 참여 속에 원활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그 일환인 '자율 독서 동아리' 활동이 11개 동아리에서 자율 진행됐습니다. 그중 정유품질관리부 직원들이 주축이 된 자율 동아리 모임이 7월 20일 신분관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박기흥 부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회원들은 자체 선정한 도서 <채식주의자>를 읽고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영국 맨부커상을 받은 작가 이야기에서 출발해 책 속 주인공이 직면한 현실과 고통, 슬픔, 분노 등 보편적 정서에 대한 공감,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들의 현실성과 허구성,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와 우리 시대에 던지는 화두 등 그야말로 깊이 있는 감상평이 줄을 잇습니다. 동아리 회원 각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감상을 다른 회원들로부터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층 폭넓은 시야를 다졌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고 말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혜안을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얻었습니다.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은 책으로 수평·수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서를 통한 자기계발과 아이디어 창출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했습니다. 뒤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운영방식을 자율참여로 바꿔 한층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은 크게 '관리자 인문학 독서'와 '자율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독서 동아리는 5인 이상의 모임으로 운영되는데, 공장 임직원 누구나 동아리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 4차수(각 2개월)의 운영주기 가운데 2차수인 6~7월 운영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9~10월과 11~12월에 3~4차수 운영주기가 도래하니 8월은 마음 맞는 직원끼리 모임을 구성하기에 최적입니다. 양서로 공감하고, 그 책을 화두로 삼아 상하좌우 막힘없이 소통하며, 열린 생각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합니다.





우리 '자율 독서 동아리'가 선택한 책

〈채식주의자〉 한강 | 창비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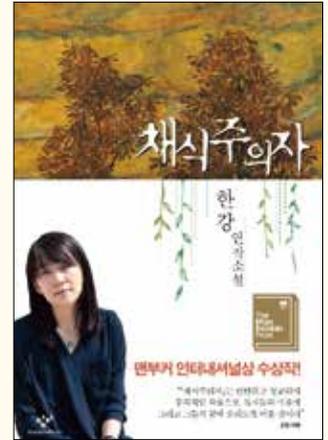
작가가 2002년부터 2005년 여름까지 쓴 이 세 편의 중편소설은 따로 있을 때는 저마다의 이야기 같지만, 합하면 작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기는 장편소설이 된다. 1부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거부하는 영혜를 바라보는 그의 남편 '나'의 이야기다. 2부 〈몽고반점〉은 인혜의 남편이자 영혜의 형부인 비디오아티스트 '나'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3부 〈나무 불꽃〉은 처제와의 부정 이후 사라진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면서 영혜의 병시중을 드는 언니 인혜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소설가 한강이 추구해온 욕망, 식물성, 죽음 등 인간 본연의 문제를 집약해 놓은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회원들의 서평

“잔잔한 목소리지만 숨 막힐 듯한 흡인력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과 식물적인 상상력을 결합시켜 섬뜩하지만 아름다운 미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기홍(정부품질관리부장)

“소설가 한강은 유달리 후각에 민감한 작가라는 생각이 든다. 제목대로라면 미각을 자극해야 할 텐데, 이 책은 자꾸만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조일충(정유품질관리과)

“몸과 욕망과 관습의 상관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의 묘사는 섬뜩하고 처연하다. 하지만 분명 눈살을 찌푸려야 하는 대목임에도 가슴이 아팠다.” 윤광수(정유품질보증과)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축, '관리자 인문학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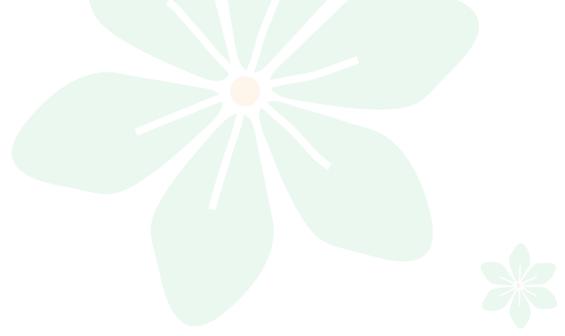
〈걱정도 습관이다〉 최명기 | 알키 | 2014

걱정이야말로 평범한 우리들의 정신을 갇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 끊어질 듯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걱정의 슬픈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시에 우리가 습관성 걱정에서 당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머릿속을 꽉 채운 복잡한 걱정을 깨끗이 행귀내고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재탄생하기 위한 지침을 사례와 함께 명확히 짚어준다.

이 책을 통해 습관처럼 하는 걱정을 끊어버리고, 뭐든 시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스케이트를 타다가 탄성이 붙으면 속도가 배가 되듯,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잘 굴러가고 있는 때가 찾아오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모멘텀 효과'라 일컫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설이며 낭비하는 대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한번 과감하게 굴러보는 것은 어떨까? 바퀴가 어디로 굴러갈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나를 테니 말이다.

황재영(탈황1과)





왼쪽부터 안상원·문명주·이상은·정찬성 퇴직자

퇴직 후 설악산행 회고

어려운 상사 그리고 좋은 선배

글 문명주(에쓰-오일과학문화재단 감사)

직장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느 때가 회사생활을 하기가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좋은 상사를 만났을 때”라고 말한다. 되돌아보면 나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일이 많아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을지라도 마음이 통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부하의 고충을 잘 헤아려주는 상사를 만났던 그 시절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으니 말이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선배의 행보를 통해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체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허물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점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선배는 나의 가장 좋은 ‘멘토(Mentor)’인 동시에 나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다.



나의 거울은 과거 '한국-이란석유주식회사(에쓰-오일의 전신)' 시기, 내가 신입사원 때 재정부문 부장님이셨다. 함께 회사 생활을 하던 당시의 선배님은 결코 좋은 상사가 아니었다. 어렵고 기피하고 싶은 상사였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회사 울타리 밖으로 나와 다시 마주하니 어느새 훌륭한 선배님, 따르고 싶은 좋은 선배님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그 시절, 부장님의 자세와 의복은 늘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어떤 일이든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마친 전사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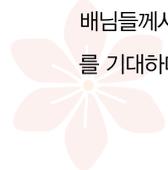
당시는 업무가 전산화되지 못해 직접 손으로 작성한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을 가지고 회계결산을 했다. 그래서 월말이나 연말결산 때가 되면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밤 12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있어서 밖으로 나다니는 수가 없었다. 부장님은 일을 독촉하기 위해 11시 30분까지 사무실 문을 지키고 있다가 언제나 혼자만 차로 퇴근하시곤 했다. 하지만 부장님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재빠르게 짐을 챙겨 인근 여관으로 가서 새벽까지 고스톱을 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다반사였다.

다음날 아침이면 부장님께서 일을 점검하시고 "도대체 밤에 일은 안 하고 뭘 했냐!"라고 다그치시곤 했었다. 간혹 실수를 하거나 일을 잘못 처리하면 "그따위로 일하려면 당장 집에 가서 애나 봐!"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젊은 시절 선배님은 마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고, 부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렇게 엄하고 호랑이 같던 그분이 지금은 나의 선배와 동료는 물론 후배들과도 함께 어울려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며 농담을 건네신다. 술잔도 주거나 받거나 하며 격의 없이 지내는, 돌도 없는 호인이 됐다. 퇴직 후 직장 '상사'는 대부분 이렇듯 자연스럽게 '선배'가 되는 모양이다.

지금은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선배님은 봄, 가을로 1년에 두어 번 한국에 들르신다. 지난 5월에는 선배님과 함께 1박2일 동안 설악산 등반에 나섰다. 산행을 하면서 과거 '한국-이란석유주식회사' 시절의 웃지 못할 야사를 풀어내던 일행은 여행하는 내내 배꼽을 잡고 웃었다. 비용 지출 건으로 이란인이었던 수석부사장님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지출 내용을 콩글리시로 설명했다는 일화가 함께 자리한 모든 이의 폭소를 이끌어냈다.

또 이란 측 이사님 일로 인해 집에서 자다가 경찰서에 불려가 유치장에 갇히게 된 기막힌 이야기부터 은행으로부터 시설차입금을 지원받아 온산공장을 건설하며 자금부족으로 찢쩍대던 시기에도 단 한 번의 급여 연체도 허용하지 않았던 임직원의 경영철학, 1980년대 초반 다른 회사에 합병될 뻔한 회사를 온몸 던져 지켜낸 선배님들의 이야기 등 우리회사와 관련한 술한 사연을 듣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산행 동안 곱씹은 추억을 통해 나는 오늘날의 에쓰-오일을 만든 것이 모두 훌륭한 선배님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야 후배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과 선배님들을 미리 살피지 못한 것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우리 현명한 후배님들께서는 현직에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퇴직 이후 함께할 추억도 모두 아름답게 꾸려나가기를 기대하며 회사의 영원한 번영과 성장을 기원한다.



퇴직 후 포토에세이집 발간

해파랑길의 독백

글_ 최영수(前기술교육팀리더)

해파랑길. 우리나라 최장 도보여행길로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총연장 770km에 달하는 해와 파란 바다와 친구 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정년퇴직을 맞아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적 여유가 생겨 나는 버킷리스트(Bucket list)의 한 줄을 지우기 위해 지난 5월 이 길을 걸었습니다.

28일간의 여정은 오로지 길을 바라보며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마주하는 길, 인간의 지문처럼 같은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무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다정다감했고, 뜨거울 때도 있었으며 바람이 불고 비도 내렸



습니다. 삭막하고 지루한 길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길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문득 길이 지워지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길이 막아섭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길이 나를 세운다고 그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길은 어디론가 이어져 있고 또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에 다소 돌아간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파랑길이 나에게 가르쳐 준 지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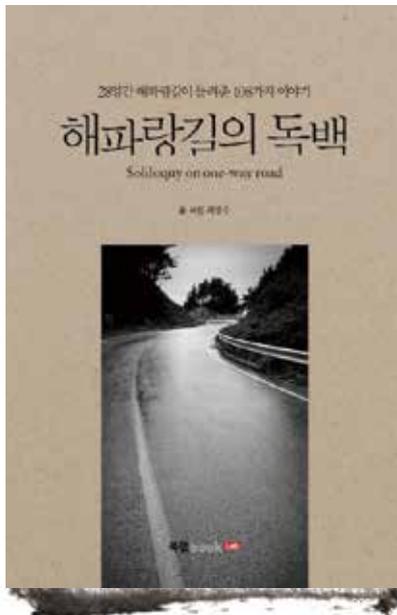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길을 만났고 그 길은 여행자에게 속삭이듯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길은 소통을 위함에는 동일하지만 길에 따라 이웃과 소통하는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집과 집이 이어주는 골목길은 우리의 가장 작은 길이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지방도로,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국도와 전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좀 더 시야를 넓혀 보면 로마가도와 실크로드가 있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로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것을 길의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집 앞의 골목길에서 사고가 생겨 길이 막혔다고 도시 간의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도나 고속도로의 불통은 도시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과연 나는 어떤 길 위에서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선한지 그렇지 않았는지 나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한 어떤 길은 인위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같은 길은 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길을 막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통행을 허락할 권한이 없습니다. 꼭 지나야 한다면 분쟁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같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행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길은 마을길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로 많은 이야기가 생기는 길입니다. 평범한 마을 이야기는 이 길을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의 작은 이야기, 사소한 다툼과 평범한 사건·사고 등 마을을 크게 벗어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 길을 따라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지구촌 저편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고양이의 재롱이 반나절이면 지구촌 전체로 퍼져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과 같이 빠른 길을 따라 세상은 지금 홍수처럼 작은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참으로 알아야 할 이야기는 가려진 채 말입니다.

해파랑길의 도보여행은 이처럼 길이 전하는 나지막한 이야기를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늘 나의 오른쪽에서 울었고, 길은 북으로 북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어깨로 받으며 걸음을 시작했던 28일간. 어쩌면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풍경이 흐른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을 마치고 길에서 만난 108개의 길 이야기와 사진을 모아 작은 책 한 권 <해파랑길의 독백>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앞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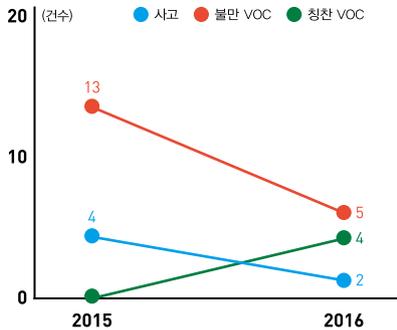


기사님! 감사합니다!

글_홍영목(수송팀)



운전원 대상 안전실천 캠페인 이후 변화 추이



유류수송차량 운전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실천 캠페인과 고객 응대 강화에 노력한 결과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바뀌는 한편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체계화로 고객감동 칭찬 사연이 '고객의 소리(VOC)'에 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유류수송차량 운전원 대상의 안전실천 캠페인으로 각종 사례를 공유해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현장실습으로 안전의식을 체질화하면서 고객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실천 모범운전원을 추천 받아 포상을 시행하는 가운데 수송업체 자체적으로도 모범운전원을 선발해 해외여행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고객친절 응대에 앞장선 운전원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안전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회사는 물류 동맥을 책임지는 유류수송차량 운전원과 상생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안전하고 정확한 제품 수송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탬 예정입니다.

'고객의 소리(VOC)'에 도착한 사연

**“정종원 운전원님의
섬세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정종원 운전원님은 하역 작업 중에도 행여 제가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을까 먹을거리를 챙겨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며 탱크 주변에 고인 물도 치워주셨죠. 그리고는 탱크 관리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법까지 상세히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지금껏 주문을 하면 안내 문자만 받고 말았었는데 '역시 에스-오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주)대진석유화학곳오일주유소

**“박재철 운전원님,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주유소로 제품을 운송해주시는 박재철 운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박재철 운전원님보다 연배가 아래인데도 늘 친절하게 이것저것 자세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속·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제품의 정량 운반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유류수송차량 운전원께도 감사의 뜻이 전달됐으면 합니다.

금호강주유소

**“이런 운전원님은 처음이에요,
최희돈 운전원님 감사합니다!”**

경유 수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희돈 운전원님을 칭찬합니다. 최희돈 운전원님께서 저희 주유소의 혼유 방지를 위해 자비로 아크릴을 제작하고 주입구 면과 유종별 캡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손수 도색까지 해주셨습니다. 유류 하역만으로도 빠듯하실 텐데 이렇듯 시간을 쪼개 직접 도움을 주시는 기사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택구도일주유소

사우 자녀 편지

우리 가족 행복 지킴이 바로 에스-오일

클_한영경(수송팀 한기중 사우 자녀)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 남창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열아홉 살 한영경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쪽 에스-오일에 몸담으셨고 지금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수송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우리 아빠가 다니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에스-오일을 좋아했었죠. 그런데 몇 해 전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진로를 결정할 당시, 화목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제게 커다란 의미와 응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씩 철이 들 무렵,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해주신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탕에는 아버지께 일을 맡겨주시고 또 끝까지 믿어주시며,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에스-오일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매년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해주는 보너스는 물론, 아버지의 입사 25주년을 기념한 가족여행 그리고 진학의 부담을 많이 덜어준 등록금 지원까지! 회사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오일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창을 전공하고 있는 터라 평소 공연을 많이 즐겨보고 종종 참가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반가운 후원자 에스-오일의 이름을 만나곤 합니다. 석유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비롯한 우리 생활 전반에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에스-오일을 볼 때마다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회사야!"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하곤 합니다.

훗날 혹시라도 에스-오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회사를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건강 비법 나눔

근력 강화 운동

두루마리 휴지의 놀라운 변신

이찬희(장치과)



다리를 꼬고 앉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골반과 어깨의 수평이 맞지 않아 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세 교정을 위해 실시했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운동인 스쿼트는 하체 근력 강화와 신체 균형에 좋은 운동입니다. 여기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활용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활용한 스쿼트 운동

- ① 스쿼트 자세로 무릎과 발뒤꿈치에 반 정도 사용한 휴지를 끼운다.
- ② 허리를 쭉 펴고 5분간 앉았다 섰다를 반복한다.
- ③ 이때, 초보자의 경우 새 휴지를 사용해 운동강도를 낮춘다.

초보자를 위한 근력 운동

전창현(프로젝트금융팀)



점점 힘이 세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놀아주기 위해서라도 체력단련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근력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끝에 개인지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트레이너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큰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법을 쉽고 안전하게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운동을 망설이고 있는 초보자라면 올바른 자세와 운동 의지를 다잡아줄 든든한 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할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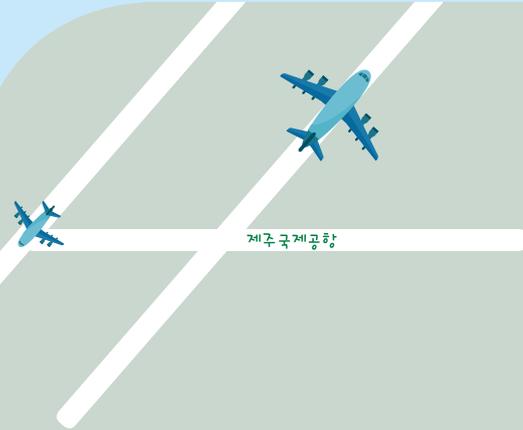
트레이너가 전수한 플랭크 운동

- ① 팔꿈치의 간격을 어깨너비와 똑같이 벌려 수직으로 지탱한다.
- ② 얼굴과 발끝을 직선으로 만들어 긴장시키고 시선은 바닥을 응시한다.
- ③ 팔꿈치로 바닥을 힘껏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약 1분간 자세를 유지한다.



섬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 제주시 별미 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제주공항과 제주시청이 있는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이자 제주도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호테우해변부터 삼성혈, 한라수목원까지 다양한 관광지가 위치해 있는 이곳에 제주시 별미 거리가 있다. 제주시 별미 거리는 구석구석 맛집이 많은 제주도 중에서도 공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행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44



● 관음사거리



돈마해장국

제주 흑돼지, 말 직영 농장에서 직접 운영 중인 해장국 전문 식당이다. 얼큰하고 구수한 뼈다귀탕과 제대로 고아 깊은 맛이 느껴지는 곰탕이 대표 메뉴며, 먹어본 사람이라면 잊지 못한다는 제주 말 모듬 수육과 말 생구이도 별미다.
전화번호 064-744-400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동로 25
영업시간 10:00~22:30

광평동로

● 돈마해장국



칠돈가

메뉴는 돼지고기와 김치찌개 둘 뿐이다. 은은한 연탄불에 구워진 제주표 두툼한 고기를 연탄 불에 함께 끓여진 멸치젓(멜젓)에 찍어 먹는다. 깔끔한 밀반찬과 김치찌개인지 고기찌개인지 헷갈릴 정도로 고기가 한 가득 담겨 나오는 김치찌개 또한 일품이다.
전화번호 064-727-909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43
영업시간 14:00~23:00(매월 둘째주 수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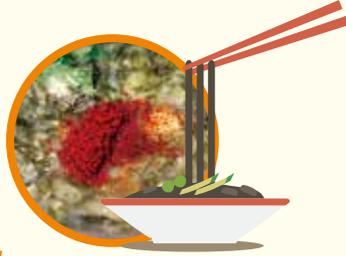
제주시 별미 거리 가는 방법

제주국제공항 하차 → 제주국제공항 버스 정류장에서 36번, 70번, 36번 버스 승차 → 도리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제주항공국제여객터미널

● 김희선몹국



김희선몹국

용담공원 인근에 위치한 제주 향토 음식 몹국 전문 한식당이다. 돼지 사골을 넣고 20시간 이상 푹 고아낸 육수에 몹(해초류)을 일컫는 제주 사투리)과 수제비를 넣고 끓여 뚝배기에 담아내는 몹국이 대표 메뉴다.
 전화번호 064-745-0047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흥운길 73
 영업시간 08:00~19:00(일요일 휴무)

● 자매국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자매국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매국수

고기국수 가게들이 모여 있기로 유명한 신산공원 인근의 국수 전문점이다. 제주도 향토음식인 고기국수가 대표 메뉴며 비빔국수를 주문해도 돼지고기 수육이 없어져 나온다. 제주산 1등급 돼지고기를 사용해 더욱 개운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전화번호 064-727-111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67
 영업시간 00:00~24:00(연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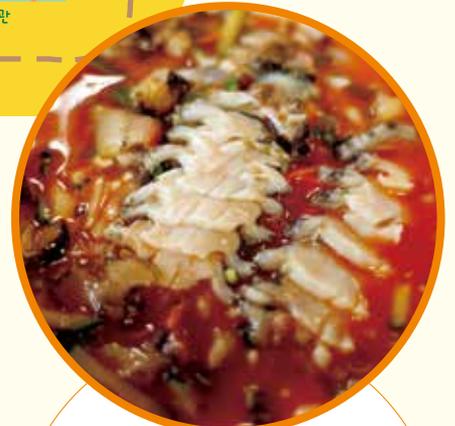
순옥이네

제주도 여름밤 명소로 잘 알려진 전복요리집이다. 물질만 40여 년을 해 온 베테랑 사장님이 직접 따 온 신선한 자연산 전복으로 만든 물회와 뚝배기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싱싱하고 큰 전복과 해삼, 멍게가 푸짐하게 들어가는 전복물회, 해삼과 멍게가 향긋한 국물에 아삭한 양파와 오이, 미역과 오돌하게 씹히는 전복이 제주 바다의 맛을 그려낸다.

전화번호 064-712-3434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8
 영업시간 09:00~20:30(설, 추석연휴 휴무)

네티즌 맛 평가

- rose*** "오직 제주도 이기에 느낄 수 있는 맛! 서울에서라면 엄두도 못 낼 맛과 가격이에요."
- **gee* "기본 밑반찬으로 나오는 톳 무침까지 너무 맛있어요. 재료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 ****jeju "아삭아삭 씹히는 오이와 오드득 씹히는 전복 맛이 일품이에요."
- Kim***** "시원하면서 상큼하고 바다의 향기가 가득한 전복 물회! 한 번 씹었을 뿐인데 녹아내려요."
- Kusu***** "없던 입맛도 다시 돌아오는 순옥이네 전복물회!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해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명한 순옥이네는 모든 메뉴에 신선한 해산물이 아낌없이 들어가요. 특히 전복 물회가 별미인데요. 청량한 제주 바다의 맛과 향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어요. 여름철 몸보신으로도 제격입니다."
 김종민(제주저유소) 사우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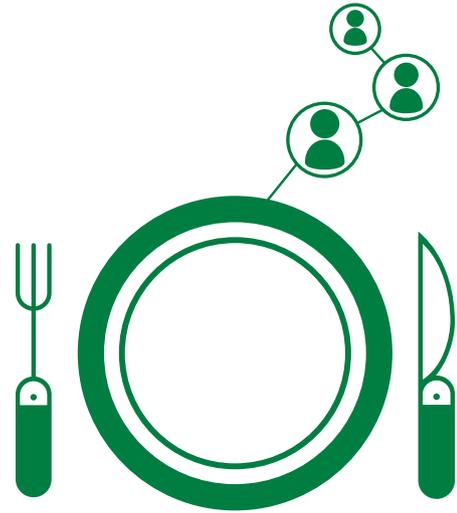


독창적인 소통 채널로 신문제호광고를 활용한 우리회사가 ‘한뼘지식’ 캠페인으로 한층 폭넓은 대국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상식뿐 아니라 생활정보, 경제, 역사, 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알차고 유용한 ‘한뼘지식’을 신문 제호 옆 작은 창에서 만날 수 있다.

한뼘지식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SNS를 통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확산된 소풍방식



>> 고대 그리스의 식사 문화인 ‘심포지온(Simposion)’에서 유래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파티 문화의 하나로 대중화된 사고 트렌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셜다이닝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쁜 일정에 쫓겨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혼자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며 뭉치는 문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고주망태

술을 짜서 받는 틀인 고주 위에 술 거르는 망태기가 꼭 걸여있는 모습을 비유

>> 술을 거르는 틀 위에 놓인 망태기는 언제나 술에 잔뜩 젖어 있기 마련이다. 망태기가 술에 젖어 있는 모습이 비유적으로 확대돼 ‘술에 몹시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게 됐다. ‘고주망태’는 ‘술을 늘 대중없이 많이 마시는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모주(母酒)망태’라는 단어와 그 어형과 의미가 유사하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나 상태를 일컫는 말에는 이 외에도 ‘곤드레만드레’, ‘술 덩빙 물 덩빙’ 등의 표현이 있다.

슬하(膝下)
자녀를 보듬는 품 안을 비유하는 말로 부모의 '무릎 아래'를 가리킨다.



> 무릎 슬(膝)과 아래 하(下) 자를 써서 무릎 아래를 가리키는 말로, 거느리는 결이나 품 안, 주로 부모의 보호 영역을 뜻한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부모님 슬하에서 유복하게 자랐다'는 식의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업사이클링(Upcycling)
재활용품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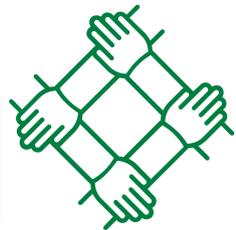


파죽지세(破竹之勢)
진(晉)나라 장군 두예가 오나라를 공략할 때 자기 병사의 사기를 '대나무 쪼개는 기세'에 비유

> 진(晉) 나라가 오(吳) 나라를 공략할 때, 철군했다가 겨울에 다시 공격하자 장수들이 많았다. 그러나 두예는 이에 반대하며 "그건 안 될 말이오. 지금 아군의 사기는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요. 대나무란 처음 두세 마디만 쪼개면 그다음부터는 칼날이 달기만 해도 저절로 쪼개지는 법인데, 어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버린단 말이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왕 손호가 항복함에 따라 진나라는 삼국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천하를 통일했다.

> 기존의 재활용과는 재활용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더 나아가 가치를 더해(Upgrade)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버려진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 활용해 얻은 지렁이 배설물 비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십시일반(十匙一飯)
밥 열 숟가락을 모으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모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



> 당장 한 사람을 도우려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밥 한 숟가락만큼 사소해 보이는 작은 도움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뜻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티끌 모아 태산' 등의 속담과 의미가 통한다. 일상 속 십시일반에는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있다.

ENGLISH

영어표현 길라잡이

업무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영어표현 중 흔히 틀리고 쉽게 놓치는 표현을 짚어드립니다.
실력 향상의 지름길은 꾸준함! 매달 사보를 통해 유용한 영어표현을
바로잡아 나가면서 실력 향상의 즐거움을 맛보세요.



프로젝트 상황

늦어지다 : fall behind

- ❶ The whole process of the main project is ~~getting late~~.
→ The whole process of the main project **is falling behind**.
주요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❷ He is very sharp with time, so make sure you don't ~~get late with schedule~~.
→ He is very sharp with time, so make sure you don't **fall behind** schedule.
그분은 시간에 있어 굉장히 엄격하니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이 밀려있다 : behind in one's work

- ❶ I ~~had many things to do~~, so I did overtime yesterday.
→ I **was behind in work**, so I did overtime yesterday.
어제는 일이 밀려있어서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 ❷ I'm sorry but too ~~much work is late~~ right now.
→ I'm sorry but I'm way **behind in my work** right now.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요.

프로젝트에 배정하다 : assign a project

- ❶ Could you give me a ~~new project~~?
→ Could you **assign me a new project**?
저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정해 주실 수 있나요?
- ❷ I'm sorry, but I think I need to drop out from the ~~project you gave me~~.
→ I'm sorry, but I think I need to drop out from the **project you assigned** me.
죄송하지만 배정해주신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 be in full swing

- ❶ Sales of the new product ~~are progressing~~.
→ Sales of the new product **are in full swing**.
신상품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❷ I'm glad to see the new Marketing team ~~started its progress~~.
→ I'm glad to see the new Marketing team **is in full swing**.
새 마케팅팀이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기쁘네요.

아랍어 한마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매일매일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듭시다.

هذا أفضل يوم في حياتي.

하-다- 아프달 야우민 피- 하야-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하디(Hadi) 사우와 전창현 사우의 목소리로 이달의 아랍어 한마디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발음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일상에 쓰이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익혀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كيف حالك؟ 어떻게 지내세요?
카이파 할-루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디 **أنا** 저는 하디입니다.
아나 하디



감사를 표할 때
لرّكش اليزج 대단히 감사합니다.
슈크란 자질-란

작별 인사를 할 때
عمّةم السلّا 잘 가요~
마앗-살라마





COVER STORY

—
홋카이도 비에이(北海道美咲)
 붉은 생명력이 움트는 여름 들판
 —

2016년 사보 (S-OIL)의 표지는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만남을 그리는
 김명식 화백의 작품으로 상생과 조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달의 퀴즈

QUIZ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옆서에 정답을 표기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 QUIZ 다른 그림 찾기 당첨자

주유상품권

김소은(정유1과 김인규 사우 가족)

김정훈(육상출하과)

손종환(기획분석팀)

휴대폰 보조 배터리

정주원(탈황1과 정영길 사우 가족)

이건오(제품운영2과)

이원기(시설투자기획팀)

이지윤(레인보우주유소.대전시 중구 보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한 장의 추억 가족들과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면?
- 업그레이드스 전문가의 1:1 코칭을 받고 싶다면?
- 허브 테라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우가 있다면?
- 성공의 법칙 존경하는 글로벌 최고경영자가 있다면?
- 건강 비법 나눔 사우들에게 소개할만한 건강 비결이 있다면?
- 오늘은 이 책 최근 읽은 도서가 있다면?

참여 안내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 sabo@s-oil.com



이달의 엽서

〈창립 40주년〉에스-오일 40년 발자취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를 일궈낸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여준희 고객, 전남 여주시 어서로



〈허브 테라피〉 유칼립투스
허브 관련 정보가 매우 유익합니다.

김진호 고객, 경남 양산시 하북면 예인길



〈오늘은 이 책〉 최후의 경전
평소 책을 좋아하던 터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김재현 Aromatics생산과



〈반갑다 주유소〉 쌍용주유소
정이 묻어나는 에스-오일
주유소로 오늘도 운전대를
돌립니다.

해인 고객,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두런두런 수다방〉 본사·공장 야구동호회 교류전
사우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소통을 응원합니다.

〈두런두런 수다방〉 본사·공장 야구동호회 교류전
사우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소통을 응원합니다.

박성섭 설비관리계획팀



주유기에는
우리를
주유곳으로
데려다준다



QR코드 찍고 구도일 패밀리 90초 광고 영상을 감상하세요~

